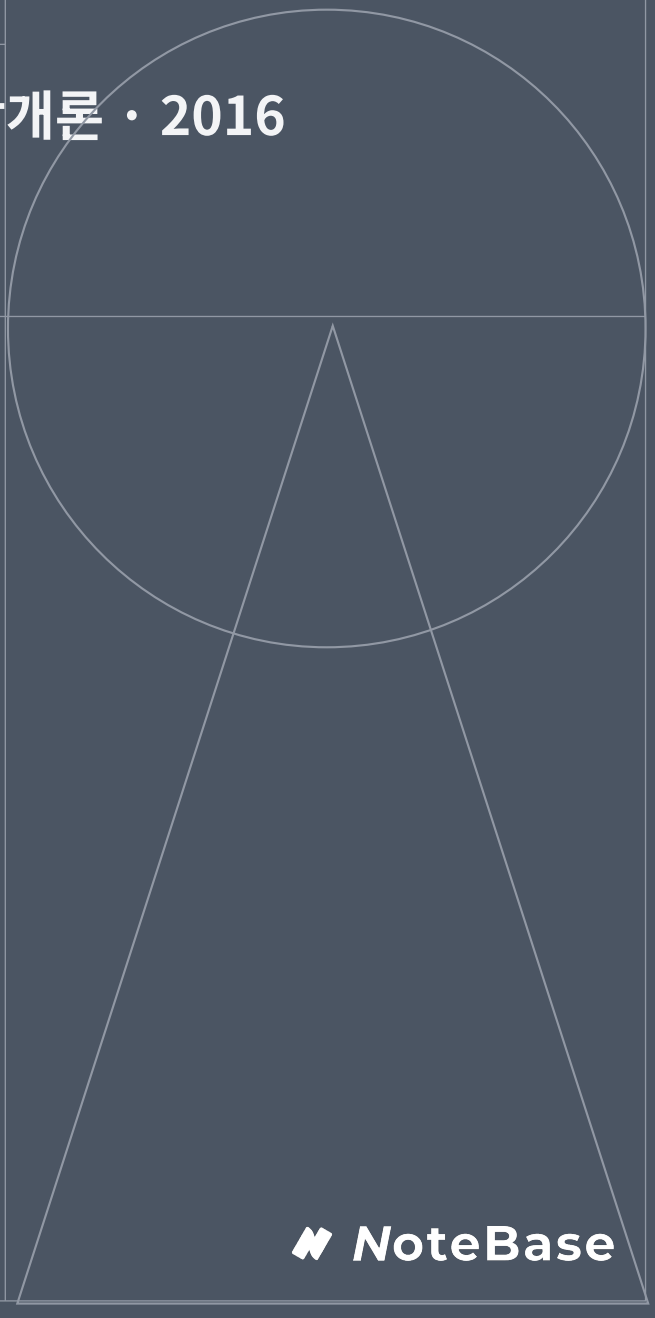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16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16

문 1.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떤 재화에 대한 기업 A의 한계비용 함수는 $MC = 8Q + 300$이다.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0일 때, 시장가격은? (단, Q는 이 기업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① 900

② 1,100

③ 1,300

④ 1,5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는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이 같다**. 생산량 100에서 한계비용이 1,100이므로 시장가격도 1,100이다.

계산 과정

이윤극대화 조건: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재화를 한 단위 더 판매할 때 늘어나는 수입인 한계수입(MR)은 시장가격(P)과 같다. 생산을 늘릴 때 한계수입이 한계비용(MC)보다 크면 이윤이 증가하고, 작으면 이윤이 감소한다. 따라서 양의 생산량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건은 $MR = MC$이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킨다. 즉, $P = MC$이다.

한계비용 계산: Q는 기업 A의 생산량이다. 주어진 한계비용 함수 $MC = 8Q + 300$에 이윤극대화 생산량 100을 대입하면 $MC = 8 \cdot 100 + 300 = 1{,}100$이다. 이는 생산량 100에서의 한계비용을 뜻한다. 이 함수는 생산량이 늘수록 한계비용이 커지므로, 이 지점을 지나 생산을 더 늘리면 추가 비용이 추가 수입을 초과한다.

시장가격: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 시장가격은 생산량 100에서의 한계비용과 같은 1,100이다. 이는 ②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음의 두 가지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자기부담률이 낮은 보험은 과잉진료 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
ㄴ.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

① ㄱ: 역선택, ㄴ: 역선택
② ㄱ: 역선택, ㄴ: 도덕적 해이
③ ㄱ: 도덕적 해이, ㄴ: 역선택
④ ㄱ: 도덕적 해이, ㄴ: 도덕적 해이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기부담률이 낮아져 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보험 가입 후 유인이 달라지는 **도덕적 해이**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려는 것은 가입자의 위험 특성에 관한 정보 차이에서 생기는 **역선택**이다.

대응 관계 해설

ㄱ.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줄면 추가 진료를 받을 때의 비용 부담도 작아져 과잉진료 수요가 생길 수 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진료 필요성과 이용 행태를 완전히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 가입 후 행동의 유인이 달라지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ㄴ. 역선택: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진료비 지출 가능성이 높아 보험 가입의 이익을 더 크게 느낀다. 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면, **계약 전부터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입 후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가입자 구성의 문제이다.

ㄱ은 도덕적 해이, ㄴ은 역선택으로 연결되므로 ③의 대응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 명, 노동(생산)가능인구가 1억 명, 경제활동인구가 8천만 명, 취업자가 7천 2백만 명인 A국 경제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① 고용률(%): 60, 실업률(%): 8

② 고용률(%): 72, 실업률(%): 10

③ 고용률(%): 80, 실업률(%): 8

④ 고용률(%): 90, 실업률(%): 1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므로 72%이다.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뺀 800만 명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므로 10%이다.

계산 과정

고용률: 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취업자 7,200만 명을 노동가능인구 1억 명(10,000만 명)으로 나누면 $\frac{7,200}{10,000} \times 100 = 72\%$이다. 분모는 **전체 인구가 아닌 노동가능인구**이므로 전체 인구 1억 2천만 명은 이 계산에 쓰지 않는다.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업자는 8,000만 명 − 7,200만 명 = 800만 명이다. 노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자 800만 명을 **경제활동인구 8,000만 명**으로 나누면 $\frac{800}{8,000} \times 100 = 10\%$이다.

고용률 72%, 실업률 10%이므로 ②의 수치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4.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매입
ㄴ. 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
ㄷ. 은행들의 초과지급준비율 하락
ㄹ. 예금은행에 대한 재할인율 하락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화폐공급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본원통화가 늘거나 통화승수가 커지면** 증가한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과 재할인율 인하는 본원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초과지급준비율 하락은 은행의 대출·예금 창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와 은행의 신용창조에 영향을 받는다. 본원통화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되며, 통화승수는 본원통화 한 단위가 뒷받침하는 통화량의 배수를 뜻한다. 각 요인의 효과는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ㄱ. O: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난다. 이는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므로 화폐공급을 늘리는 요인이다. 통화안정증권을 발행·매각하여 자금을 흡수하는 경우와 방향이 반대이다.

ㄴ. O: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면서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면 시중에 원화가 공급된다. 별도의 자금 흡수 조치로 이를 상쇄하지 않는 한 **본원통화가 증가**하여 화폐공급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ㄷ. O: 초과지급준비율은 예금 중 법정 지급준비금 외에 은행이 추가로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 등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비중이 커져 대출과 예금의 창출이 확대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으면 **통화승수가 상승**하여 같은 본원통화로 더 많은 통화를 공급할 수 있다.

ㄹ. O: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이다. 재할인율이 하락하면 예금은행의 **중앙은행 차입 비용이 낮아져** 차입 유인이 커진다. 이에 따라 은행에 공급되는 지급준비금과 본원통화가 늘어나 대출·예금 창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며,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기업 A의 현재 주식 가격은 이 기업의 기대 배당금 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들의 합인 5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 A의 할인율이 상승하면 이 기업의 주식가격은 상승한다.

② 기업 A의 기대 배당금 흐름이 증가하면 이 기업의 주식가격은 상승한다.

③ 기업 A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성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 기업의 할인율은 상승한다.

④ 기업 A의 미래 현금흐름이 위험해질수록 이 기업의 주식가치는 하락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주식가격은 상승한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기대 배당금 흐름이 같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져** 주식가격은 하락한다.

선지별 해설

주식가치는 앞으로 받을 기대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다. 할인율을 r, t기 기대 배당금을 $E(D_t)$라 하면 그 배당금의 현재가치는 $\frac{E(D_t)}{(1+r)^t}$이다. 할인율은 미래의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이며,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반영한다.

① X: 기대 배당금 흐름이 일정할 때 할인율이 상승하면 현재가치 식의 분모가 커진다. 따라서 각 배당금의 현재가치와 그 합이 작아져 주식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의 5만 원보다 낮아진다.

② O: 할인율이 일정할 때 기대 배당금 흐름이 증가하면 현재가치 식의 분자가 커진다. 앞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배당금이 많아지므로 **배당금 현재가치의 합**인 주식가격도 상승한다.

③ O: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는 불확실한 수익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위험 부담에 대한 추가 보상인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를 반영한 할인율도 상승한다.

④ O: 기대 현금흐름의 크기가 같더라도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인 할인율이 높아진다. 같은 미래 현금흐름을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므로 현재가치가 작아져 주식가치는 하락한다.

NoteBase

문 6. 신용등급이 낮은 어떤 국내 기업이 1년 후 105만 원을 상환하는 회사채를 오늘 발행하였다. 현재 1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이 연 5%라고 할 때, 이 회사채의 현재 가격은?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

③ 100만 원 초과 105만 원 이하

④ 105만 원 초과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부도위험에 대한 보상 때문에 같은 만기의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이 요구된다. 1년 후 105만 원을 받는 채권을 연 5%로 할인하면 100만 원이므로,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 회사채의 가격은 **100만 원 미만**이다.

계산 과정

국채 기준 현재가치: 1년 후 받을 금액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려면 1년간의 이자율로 할인한다. 상환액이 105만 원이고 할인율이 연 5%라면 현재가치는 $\frac{105}{1.05} = 100$만 원이다. 이는 오늘 100만 원을 연 5%로 운용하면 1년 후 105만 원이 된다는 뜻이다.

회사채의 할인율: 신용등급이 낮으면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투자자는 이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국채 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더한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 회사채의 연간 할인율을 r이라 하면 $r > 0.05$이고, 현재 가격 P는 $P = \frac{105}{1+r}$만 원이다. r은 소수로 나타낸 연간 이자율이다.

가격 판단: 상환액이 같을 때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격은 낮아진다**. 따라서 $P < \frac{105}{1.05} = 100$만 원이므로, 회사채의 현재 가격은 ①의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 위험프리미엄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가격까지는 구할 수 없다.

NoteBase

문 7. 독점기업의 제3급 가격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가격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소비자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③ 생산량에 관계없이 한계비용이 일정할 경우,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각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이 동일하도록 판매량을 결정해야 한다.

④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에게 높은 가격을, 가격탄력성이 낮은 집단에게 낮은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가격탄력성과 가격의 관계를 반대로 설명했다. 제3급 가격차별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에는 낮은 가격**을, **낮은 집단에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가격에 민감한 집단에 높은 가격을 매기면 판매량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3급 가격차별은 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수요 특성이 다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마다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 집단을 식별하고 구분**하여 각 집단에 해당 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O: 낮은 가격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상품을 사서 높은 가격을 적용받는 소비자에게 되팔 수 있다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소비자가 줄어든다. 집단별 가격 차이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재판매를 통한 차익거래가 차단**되어야 한다.

③ O: 한계수입은 상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할 때 늘어나는 총수입이고, 한계비용은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늘어나는 총비용이다. 각 시장에 모두 판매하는 경우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공통의 한계비용과 같게 맞춘다. 두 시장이라면 $MR_1 = MR_2 = MC$가 성립한다. 만약 한 시장의 한계수입이 더 크다면 총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그 시장의 판매량을 늘리고 다른 시장의 판매량을 줄여 이윤을 높일 수 있으므로, 최적 배분에서는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같아야 한다**.

④ X: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이며, 여기서는 절댓값으로 비교한다.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이므로, 이윤극대화 가격은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 낮고, 낮은 집단에서 높다**. 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가격 인상에 따른 구매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아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선지는 두 집단에 적용할 가격의 방향을 서로 바꾸었다.

NoteBase

문 8. 기업 A와 B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략으로 대규모 예산과 소규모 예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이 동시에 각각 한 전략을 한 번만 선택하는 게임의 보수행렬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표에서 왼쪽 금액은 기업 B, 오른쪽 금액은 기업 A의 보수를 나타낸다)

(단위 : 억 원)

		기업 A	
		대규모 예산	소규모 예산
기업 B	대규모 예산	(30, 20)	(70, 10)
	소규모 예산	(10, 30)	(50, 40)

① 기업 A의 우월전략은 대규모 예산이다.

② 기업 A가 소규모 예산을, 기업 B가 대규모 예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내쉬균형이 된다.

③ 기업 A가 대규모 예산을, 기업 B가 대규모 예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내쉬균형이 된다.

④ 기업 A가 소규모 예산을, 기업 B가 소규모 예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내쉬균형이 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두 기업이 모두 대규모 예산을 선택하면, A가 혼자 소규모로 바꿀 때 보수는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B가 혼자 바꿀 때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든다. 어느 기업도 **혼자 전략을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으므로** 내쉬균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의 행은 기업 B의 전략, 열은 기업 A의 전략이며, 각 칸의 왼쪽 금액은 B, 오른쪽 금액은 A의 보수이다.
우월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다른 전략보다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이다.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을 고정했을 때 어느 기업도 자신의 전략만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는 전략 조합이다.

① X: B가 대규모 예산을 선택하면 A의 보수는 대규모일 때 20억 원, 소규모일 때 10억 원이므로 A는 대규모를 선호한다. 반면 B가 소규모 예산을 선택하면 A의 보수는 대규모일 때 30억 원, 소규모일 때 40억 원이므로 A는 소규모를 선호한다. A의 최선의 선택은 **B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월전략이 없다**.

② X: A가 소규모, B가 대규모 예산을 선택하면 보수는 B가 70억 원, A가 10억 원이다. B의 전략이 대규모로 유지될 때 **A는 대규모로 바꾸어** 보수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다. 이 조합에서는 A의 소규모 선택이 최적반응이 아니다.

③ O: 두 기업이 모두 대규모 예산을 선택하면 보수는 B가 30억 원, A가 20억 원이다. B가 대규모를 유지할 때 A가 소규모로 바꾸면 보수는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든다. A가 대규모를 유지할 때 B가 소규모로 바꾸어도 보수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든다. 두 기업의 전략이 **서로에 대한 최적반응**이므로 내쉬균형이다.

④ X: 두 기업이 모두 소규모 예산을 선택하면 보수는 B가 50억 원, A가 40억 원이다. A가 소규모를 유지할 때 **B는 대규모로 바꾸어** 보수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내쉬균형이 아니다. B는 A가 대규모를 선택할 때에도 소규모의 10억 원보다 대규모의 30억 원을 선호하므로, B의 우월전략은 대규모 예산이다.

NoteBase

문 9.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 두 국가만이 존재한다고 하자. A국은 X재를 한 단위 생산하는 시간 동안 Y재를 2단위 생산할 수 있고, B국은 X재를 한 단위 생산하는 시간 동안 Y재를 4단위 생산할 수 있다. 이 비용조건이 항상 일정하다고 할 때, A국과 B국이 무역을 하기 위한 교역조건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① X재 한 단위당 Y재 2.5단위

② X재 한 단위당 Y재 3단위

③ Y재 한 단위당 X재 0.2단위

④ Y재 한 단위당 X재 0.3단위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Y재 1단위당 X재 0.2단위는 X재 1단위당 Y재 5단위와 같다. B국은 X재 1단위를 직접 생산하면 Y재 4단위만 포기하므로, 이 조건으로 X재를 수입하면 **직접 생산할 때보다 비용이 커진다**.

계산 과정

기회비용은 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에서 Y재 2단위, B국에서 Y재 4단위이다. 비용조건이 일정하므로 생산량이 달라져도 이 비율은 유지된다. 따라서 기회비용이 더 낮은 **A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어 A국이 X재를 수출하고 B국이 Y재를 수출한다.

X재 1단위와 교환되는 Y재의 양을 t라고 하자. A국은 X재 1단위를 생산할 때 Y재 2단위를 포기하므로, 수출 대가로 Y재를 2단위보다 많이 받아야 이익이다. B국은 X재 1단위를 직접 생산하면 Y재 4단위를 포기하므로, 수입 대가로 Y재를 4단위보다 적게 지급해야 이익이다.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인 $2 < t < 4$이다. 경계값에서는 한 나라의 무역 이익이 0이다.

③과 ④는 Y재 1단위를 기준으로 표시했으므로 **교환비율의 역수**를 구해 X재 1단위 기준으로 바꾼다. ③의 Y재 1단위당 X재 0.2단위는 X재 1단위당 Y재 $\frac{1}{0.2} = 5$단위이다. ④의 Y재 1단위당 X재 0.3단위는 X재 1단위당 Y재 $\frac{1}{0.3} = \frac{10}{3}$단위이다.

X재 1단위 기준으로 ①의 Y재 2.5단위, ②의 Y재 3단위, ④의 Y재 $\frac{10}{3}$단위는 모두 2단위와 4단위 사이에 있다. 반면 ③의 Y재 5단위는 B국의 기회비용인 Y재 4단위를 초과한다. B국은 X재를 직접 생산하는 편이 유리하므로 ③은 교역조건으로 가능하지 않다.

NoteBase

문 10. 디플레이션(deflation)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고정금리의 경우, 채무자의 실질 채무부담이 증가한다.

②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때 실질이자율이 내려간다.

③ 명목연금액이 일정할 때 실질연금액은 증가한다.

④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화폐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실질이자율은 대략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다. 디플레이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음수이므로, 명목이자율이 일정하면 **실질이자율은 상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고정금리로 빌린 돈의 명목 원리금은 물가 하락에 맞추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갚는 데 필요한 재화의 양이 늘어나 **채무자의 실질 채무부담이 증가한다**.

② X: 명목이자율을 i, 물가상승률을 π, 실질이자율을 r이라 하면 피셔 관계에 따라 $r \approx i - \pi$이다. 디플레이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음수이므로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보다 높다.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때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실질이자율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

③ O: 실질연금액은 지급받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뜻한다. 명목연금액이 일정해도 물가가 하락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므로 **연금의 구매력이 증가한다**.

④ O: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면 앞으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재화를 살 수 있다고 기대한다. 따라서 현재 소비를 미루고 **화폐를 보유하려는 유인**이 커지므로, 이러한 예상은 화폐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NoteBase

문 11. 폐쇄경제 하에서 총수요(AD)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지출 증대
ㄴ.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채권 매각
ㄷ. 지불준비율 인하
ㄹ. 재할인율 인상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부지출 증대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직접 늘린다**. 지불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부의 재화·서비스 구입 증가는 **총수요를 직접 증가**시킨다. 이 지출이 민간의 소득으로 이어지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

ㄴ. X: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채권 매각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팔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총수요를 진작시키려면 채권 매각이 아니라 **채권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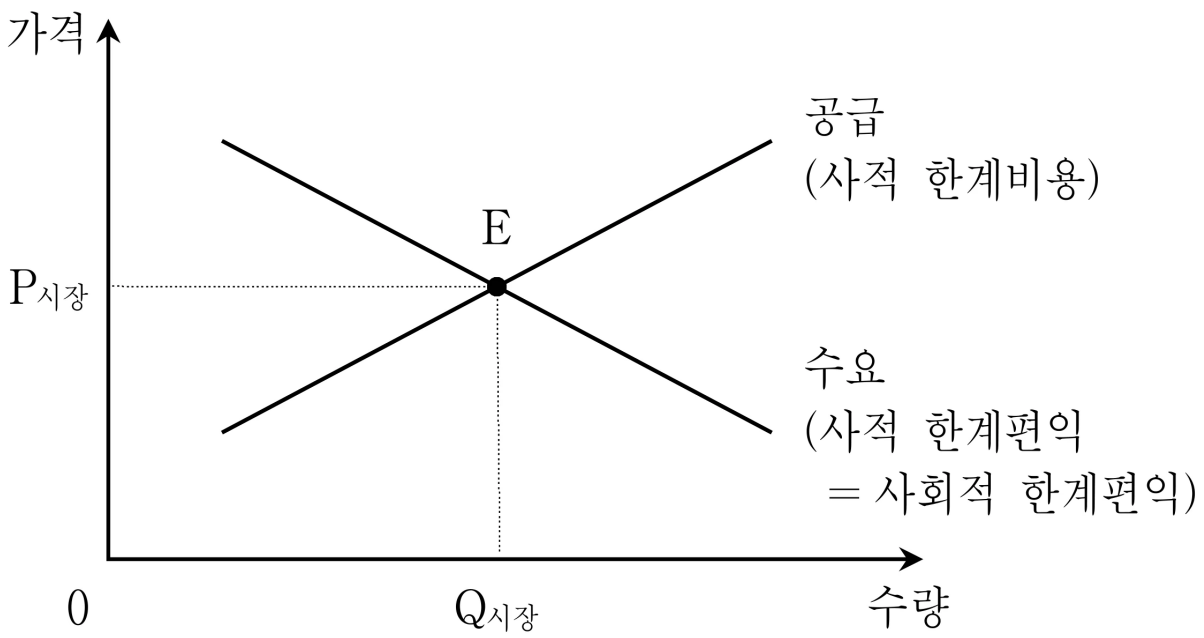
ㄷ. O: 지불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이를 낮추면 같은 예금에 필요한 지급준비금이 줄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진다**. 대출과 통화공급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ㄹ. X: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이다. 이를 인상하면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 비용이 높아져 자금 조달과 대출이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총수요를 진작시키려면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하여 은행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은 ㄱ과 ㄷ이므로 ①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그림은 A재 시장의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을 각각 반영하는 수요와 공급곡선이다. 이 재화 생산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발생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긴다. 이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재의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② 시장균형(E점)은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한다.

③ 시장균형가격(P_시장)은 외부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높다.

④ 시장균형 생산량(Q_시장)은 외부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는 오염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진다**. 시장에서는 이 피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A재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이며, E점은 사적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과 사적 한계편익을 나타내는 수요곡선의 교점이다. 수요곡선의 표시처럼 이 문제에서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같다.

① X: 사회적 한계비용은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뿐 아니라 오염으로 제삼자가 입는 추가 피해인 한계외부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다**.

② X: E점에서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같지만, 오염 피해를 포함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마지막 한 단위의 생산이 주는 편익보다 사회 전체의 추가 비용이 더 크므로 **생산을 줄이면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한다**. 따라서 E점은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아니다.

③ X: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량이다.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을 그림에 추가하면 기존 공급곡선보다 위에 놓이므로, 수요곡선과의 교점은 E점보다 왼쪽 위에 형성된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더 적은 최적 생산량에서의 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다. 즉 시장균형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낮다**.

④ O: 시장에서는 오염 피해가 생산자의 비용에 반영되지 않아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같은 수량까지 생산한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오염 피해까지 포함한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더 적은 수량이 최적이다. 따라서 시장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으며,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로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NoteBase

문 13. 다음과 같은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투자지출이 220, 정부지출이 220, 조세수입이 250으로 각각 증가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 소비함수: $C = 0.75(Y - T) + 200$
* Y는 국민소득
◯ 투자지출: $I = 200$
◯ 정부지출: $G = 200$
◯ 조세수입: $T = 200$

① 10 감소
② 10 증가
③ 20 감소
④ 20 증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투자·정부지출 증가액 40에서 증세에 따른 소비 감소액 37.5를 빼면, 소득 증가에 따른 추가 소비를 제외한 지출은 2.5 증가한다. 여기에 **지출승수 4**가 적용되어 균형국민소득은 **10 증가**한다.

계산 과정

균형 조건: 국민소득 Y는 계획된 총지출과 같으므로 $Y = C + I + G$이다. 소비함수 $C = 0.75(Y - T) + 200$에서 0.75는 처분가능소득이 1 증가할 때 소비가 0.75 증가한다는 뜻의 한계소비성향이다. 조세 T는 소득에 비례하는 세율이 아니라 주어진 금액이다.

변화량: 투자지출은 200에서 220으로, 정부지출은 200에서 220으로 증가하므로 각각 증가액은 20이다. 조세수입은 200에서 250으로 증가하므로 증가액은 50이다. 즉, $\Delta I = 20$, $\Delta G = 20$, $\Delta T = 50$이다.

최초 지출 변화: 투자와 정부지출은 총지출을 직접 늘리지만, 증세는 처분가능소득을 줄여 소비를 감소시킨다. **증세액 전부가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만큼** 소비가 줄어들므로, 소득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 소비 감소액은 $0.75 \times 50 = 37.5$이다. 따라서 소득 변화와 무관한 지출의 순증가액은 $20 + 20 - 37.5 = 2.5$이다.

승수 적용: 최초 지출 증가가 소득을 늘리면 그 소득의 0.75만큼 소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 모형에서 지출승수는 $\frac{1}{1-0.75} = 4$이므로, 균형국민소득 변화는 $\Delta Y = 4 \cdot 2.5 = 10$이다. 균형국민소득이 10 증가하므로 ②의 '10 증가'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솔로우모형과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솔로우모형에서는 기술진보율이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을 결정한다.

②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수확체감을 극복하면서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하다.

③ 솔로우모형에서는 경제성장의 요인인 기술진보율과 인구증가율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④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내생적 성장이론은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보지 않는다**. 인적자본 축적과 연구개발 등의 차이가 지속되면 성장률 차이가 유지되어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솔로우모형에서 균제상태는 효율적 노동 1단위당 자본과 산출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이다. 이때 기술진보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므로 **1인당 소득은 기술진보율만큼 증가**한다. 저축률 상승은 1인당 소득 수준을 높이지만, 장기적인 1인당 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지는 못한다.

② O: 자본의 수확체감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자본을 더 투입할수록 추가 산출량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지식의 파급효과나 인적자본 축적 등을 통해 **경제 전체 차원에서 자본의 수확체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술진보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하다.

③ O: 솔로우모형은 기술진보율과 인구증가율을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값**으로 취급한다. 즉, 두 증가율이 경제 내부의 연구개발이나 출산 선택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모형 자체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변수는 외생적이다.

④ X: 내생적 성장이론은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자동적인 축소를 보장하지 않는다**. 인적자본, 연구개발 투자, 지식 축적 등의 차이가 장기 성장률의 차이로 이어지면 격차가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가난한 나라가 더 빠르게 성장하여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수렴은 솔로우모형에서 자본의 수확체감과 연결된다. 이 경우에도 저축률·인구증가율·기술 등 균제상태를 결정하는 조건이 같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NoteBase

문 15. A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국가이다. 두 재화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 표와 같을 때, A국의 기준년도 대비 비교년도의 실질 GDP 성장률은?

	기준년도		비교년도	
	생산량(개)	가격(원)	생산량(개)	가격(원)
X재	100	10	100	11
Y재	200	20	210	20

① 10%

② 7%

③ 4%

④ 1%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실질 GDP는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두 해의 생산량을 평가하여 가격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다. 기준년도 5,000원에서 비교년도 5,200원으로 증가하므로 실질 GDP 성장률은 4%이다.

계산 과정

실질 GDP는 생산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두 해 모두 기준년도 가격**을 적용한다. 따라서 X재는 개당 10원, Y재는 개당 20원으로 평가하며, 비교년도의 X재 가격 11원은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기준년도 실질 GDP: 표의 기준년도 생산량인 X재 100개와 Y재 200개에 각각 기준년도 가격을 곱해 합한다. $100 \times 10 + 200 \times 20 = 5{,}000$원이다.

비교년도 실질 GDP: 비교년도 생산량인 X재 100개와 Y재 210개를 기준년도 가격으로 평가한다. $100 \times 10 + 210 \times 20 = 5{,}200$원이다. X재 생산량은 그대로이고 Y재 생산량이 10개 늘었으므로, 기준년도 가격으로 평가한 생산액이 200원 증가한 것이다.

실질 GDP 성장률: 증가액을 **기준년도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다. $\frac{5200-5000}{5000} \times 100 = 4\%$이므로, 실질 GDP 성장률은 4%이며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피구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화폐잔고가 (㉠)하고 이로 인해 (㉡)곡선이 (㉢)으로 이동하면서 경기의 (㉣)(으)로 이어진다.

① ㉠: 증가, ㉡: IS, ㉢: 오른쪽, ㉣: 회복

② ㉠: 증가, ㉡: LM, ㉢: 왼쪽, ㉣: 회복

③ ㉠: 감소, ㉡: IS, ㉢: 왼쪽, ㉣: 침체

④ ㉠: 감소, ㉡: LM, ㉢: 오른쪽, ㉣: 침체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물가가 하락하면 보유 화폐의 실질가치가 커져 **소비가 증가**한다. 피구효과는 이러한 자산효과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경기가 회복되는 경로이다.

빈칸별 해설

㉠ 증가: 실질화폐잔고는 보유한 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을 뜻하며, 명목화폐잔고를 M, 물가수준을 P라고 하면 $\frac{M}{P}$이다. **명목화폐잔고가 일정할 때** 물가가 하락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재화를 살 수 있으므로 실질화폐잔고가 증가한다.

㉡ IS: 피구효과에서는 실질화폐잔고의 증가를 실질적인 부의 증가로 인식하여 **소비를 늘리는 경로**가 핵심이다. 소비는 재화시장의 지출 항목이므로 재화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이 이동한다. 실질화폐공급 증가가 LM곡선을 이동시키고 이자율 하락을 통해 투자를 늘리는 경로는 케인스효과와 구별한다.

㉢ 오른쪽: 소비가 증가하면 주어진 이자율에서 총지출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화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소득이 더 커지므로 IS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회복: 소비 증가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균형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 경로는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

㉠~㉣은 '증가－IS－오른쪽－회복'으로 채우며, 이는 ①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시장이자율이 (㉠)하면, 채권수익률이 (㉡)하며, 채권가격이 (㉢)하게 된다.

① ㉠: 하락, ㉡: 상승, ㉢: 상승
② ㉠: 하락, ㉡: 하락, ㉢: 상승
③ ㉠: 상승, ㉡: 하락, ㉢: 하락
④ ㉠: 상승, ㉡: 상승, ㉢: 상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채권수익률은 **시장이자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약정된 이자와 원금이 일정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낮아질수록 미래 지급액의 현재가치가 커지므로 **가격이 상승**한다.

빈칸별 해설

㉠ 하락: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시장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존 채권이 지급하는 고정된 이자와 원금의 상대적 매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기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 하락: 채권수익률은 현재 가격에 채권을 매입하여 앞으로 이자와 원금을 받을 때 얻는 수익률이다. 위험과 만기 등 조건이 같은 투자 대상 사이에서는 수익률이 비슷해지도록 가격이 조정되므로, 채권수익률은 **시장이자율과 같은 방향**으로 하락한다. 발행 시 정해진 표면이자율 자체가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 상승: 채권가격은 앞으로 받을 이자와 원금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미래에 받을 금액이 일정할 때** 할인율이 낮아지면 현재가치가 커지므로 채권가격이 상승한다. 같은 이자와 원금을 받는 채권을 더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도 가격과 수익률의 역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 하락, ㉡ 하락, ㉢ 상승의 조합인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제가격으로 수입하던 재화에 대해 정부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생산자 잉여는 (㉠)하고, 소비자 잉여는 (㉡)하며, 총 잉여는 (㉢)한다(이다).

① ㉠: 감소, ㉡: 감소, ㉢: 감소
② ㉠: 증가, ㉡: 감소, ㉢: 불변
③ ㉠: 감소, ㉡: 증가, ㉢: 불변
④ ㉠: 증가, ㉡: 감소, ㉢: 감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입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국내 생산자는 이익을 얻지만, 소비자가 잃는 잉여는 생산자 이익과 정부 관세수입을 합한 것보다 크다. 그 차이인 **사중손실** 때문에 총 잉여는 감소한다.

빈칸별 해설

국제가격이 변하지 않는 소국의 표준 무역모형을 전제로 판단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오르고, 이와 경쟁하는 국내 생산품의 가격도 오른다.

㉠ 증가: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생산을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을 뺀 것이다. 국내가격이 오르면 기존 생산량에서 얻는 잉여가 커지고 국내 생산량도 늘어나므로, **국내 생산자의 잉여가 증가**한다.

㉡ 감소: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출액을 뺀 것이다. 관세로 가격이 오르면 계속 구매하는 소비자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일부 소비자는 구매를 포기한다. 따라서 **가격 상승과 소비량 감소**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

㉢ 감소: 관세 부과 후 국내 총 잉여에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뿐 아니라 **정부의 관세수입도 포함**한다. 소비자가 잃은 잉여의 일부는 국내 생산자와 정부로 이전되지만, 전부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가격보다 생산비용이 높은 국내 생산이 늘어나는 생산 왜곡과, 국제가격에서는 소비할 가치가 있던 재화의 소비가 줄어드는 소비 왜곡이 발생한다. 이 두 왜곡에 따른 사중손실만큼 총 잉여가 감소한다.

따라서 빈칸은 ㉠ 증가, ㉡ 감소, ㉢ 감소이며,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완전경쟁시장에서 A재의 시장공급은 $Q_s = 100 + 2P$이고 시장수요는 $Q_d = 400 - P$이다. 이 시장의 소비자에게 한 단위당 30의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 공급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단, Q_s, Q_d, P는 각각 A재의 공급량, 수요량, 가격이다)

① 공급자가 받는 가격: 8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10

② 공급자가 받는 가격: 9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20

③ 공급자가 받는 가격: 10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30

④ 공급자가 받는 가격: 11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4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종량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보다 **단위당 세금 30만큼 높다**. 이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9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20이다.

계산 과정

1. 세후 가격 구분: 공급자가 받는 가격을 P_s, 소비자가 세금을 포함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P_c라고 하자.
소비자에게 단위당 30의 종량세가 부과되므로 $P_c = P_s + 30$이다. 공급량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 따라 $Q_s = 100 + 2P_s$로 결정되고, 수요량은 **세금을 포함한 소비자 가격**에 따라 $Q_d = 400 - P_c$로 결정된다.

2. 공급자가 받는 가격 계산: 시장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한다. 수요식에 $P_c = P_s + 30$을 대입하면 $Q_d = 400 - (P_s + 30) = 370 - P_s$이다. 따라서 균형조건은 $100 + 2P_s = 370 - P_s$이며, 이를 정리하면 $3P_s = 270$이므로 $P_s = 90$이다.

3.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계산: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90에 세금 30을 더 부담하므로 소비자 가격은 90 + 30 = 120이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 90,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20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현재 미국의 1년 만기 채권의 연 수익률이 4%이고 환율은 1,000원/$이며, 채권 만기 시 예상 환율은 1,030원/$이다. 유위험 이자율평가(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가 성립하고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고 할 때, 현재 한국의 1년 만기 채권의 연 수익률에 가장 가까운 값은?

① 4%

② 7%

③ 10%

④ 12%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투자금의 원화 환산액을 늘린다. 유위험 이자율평가에서는 미국 채권의 이자와 **예상 환차익을 함께 반영한 원화 기준 기대수익률**이 한국 채권 수익률과 같으므로, 한국의 연 수익률은 약 7.12%이다.

계산 과정

수익률 비교 기준: 유위험 이자율평가가 성립하면 한국 채권의 원화 수익률과 미국 채권의 **원화 기준 기대수익률**이 같아진다. 미국 채권의 달러 수익률 4%에 더해, 만기에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예상되는 환율 변화까지 반영해야 한다.

미국 채권의 만기 예상 금액: 현재 환율이 1,000원/$이므로 1,000원을 환전하면 1달러이다. 이를 연 수익률 4%의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1년 후 1.04달러가 된다. 만기 예상 환율 1,030원/$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은 1.04 × 1,030 = 1,071.2원이다. 이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예상 환율을 적용한 만기 금액**이다.

한국 채권의 연 수익률: 한국 채권의 연 수익률을 i_K라 하면, 같은 1,000원을 투자한 만기 금액이 같아야 하므로 $1{,}000(1 + i_K) = 1{,}071.2$이다. 따라서 $i_K = \frac{1{,}071.2 - 1{,}000}{1{,}000} = 0.0712$이다. 원금 1,000원에 대한 1년간의 수익이 71.2원이므로 연 수익률은 7.12%이며, 가장 가까운 값은 ②의 7%이다.

NoteBase